

# 별교꼬막 옛 명성 되찾는다

자원 급감으로 멸종위기까지 우려되는 별교꼬막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계획이 추진된다.

인공종자 살포, 종자 증식육성장 조성 등을 통해 꼬막 생산량을 연간 1만개까지 회복, 별교꼬막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것이 목표다.

전남도와 보성군은 22일 별교꼬막 명성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별교꼬막 꼬막 자원 회복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남도와 보성군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꼬막자원 회복을 위한 10대 중

## 전남도-보성군 '자원 회복 종합계획' 마련 2027년까지 366억 투입 10대 과제 추진

점과제를 추진한다.

10대 중점과제는 ▲ 별교꼬막 꼬막 자원회복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 자원회복 가속화를 위한 인공유생 살포 ▲ 꼬막 종묘배양장의 자원회복센터로의 기능 확대 등이다. 또, 꼬막종자를 잡아먹는 갯벌 내 식해생물 제거 ▲어미자원 조성을 위한 인공종자 살포 ▲ 꼬막종자 증식 육성장 조성 ▲ 바다목장화 사업 확대 ▲

자원회복 모니터링, 채취크기 제한, 관리수면 확대 등도 시행한다.

보성군은 이를 통해 자원급감 현상을 겪고 있는 별교꼬막 생산량을 연간 1만개까지 회복해 지역소득 1500억원, 일자리 창출 1000명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10대 과제에 따라 전남도, 어업인, 관계기관 등 20여명으로 꼬막 자원회복을 위한 지역협의체도 구성도 마쳤다.

지난 18일 꼬막 종묘배양장에서 생산된 꼬막 인공유생 5억마리도 시범 방류했다. 오는 10월에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꼬막 유생과 치패 상태에 대한 바다 생존율을 모니터링해 내년도 별교꼬막 꼬막자원 회복 종합 계획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꼬막자원회복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과거의 별교꼬막 명성을 되찾고, 더 나아가 별교 꼬막 자원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가고 싶은 섬' 대상지 공모 9개섬 응모

### 여수 연도·해남 어불도 등 다음달까지 2개 섬 확정

전남도가 브랜드 시책으로 추진하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내년 사업 대상지 공모에 9개 섬이 응모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공모에서 여수 연도·하화도, 해남 어불도, 영광 하나원도, 완도 여서도, 진도 대마도, 신안 우이도·대야도·재원도 등 6개 시·군, 9개 섬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수 연도는 소리도 등대 명소화와 추억의 옛길 복원, 연도 9경(景) 지정 및 스토리텔링 등을 주요 컨셉으로, 하화도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야생화 단지 조성 및 페스티벌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해남 어불도는 사계절 꽃길과 독살 체험장을, 영광 하나원도는 마을 정원조성과 자연돌 조각공원, 완도 여서도는 폐교 리모델링과 해안 일주체험, 돌레길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진도 대마도는 대마도 특화음식인 뜰복국 개발과 해변 포토존 설치 등을, 신안군 우이도는 노을 해변공원 및 해수욕장 조성과 모실길 마을돌담 정비 등을 주요 컨셉으로 제출했다.

신안군 대야도는 풍물해변 정비 등을, 재원도는 마을펜션·카페 신축 및 추억의 파시거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서류평가 30%, 현장평가 70%를 반영해 다음달까지 사업 대상지인 2개 섬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15년 여수 남도를 비롯해 고흥 연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6개 섬을 시작으로 매년 2개 섬을 추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개 섬에서 추진 중이며 2024년까지 24개 섬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 쟁점음

### 현재 202개 읍면동 완료 내년까지 복지 사각 해소

전남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맞춤형 복지팀'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설치키로 한 '맞춤형 복지팀'이 지난달 현재 202개 읍면동에 설치돼 올해 목표인 60%(178개소)를 초과 달성했다. 이 가운데 광양시와 해남·영광·함평·완도·진도군 등 6개 시군은 모든 읍면동에 설치가 완료됐다.

맞춤형 복지팀 확대 설치에 따라 찾아 가는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늘었다. 올 들어 7월 말 현재까지 맞춤형 사례관리는 3706가구, 서비스 제공은 8684건으로 집계됐다.

복지 사각 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취약계층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차량도 지난해 3대 보급에서 올해는 전기차 56대 등 136대로 늘었다.

나윤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오는 10월 말까지 구례와 고흥 등 6개 시군 46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추가 설치하고, 2018년까지 297개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완료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도시공원 일몰제' 토론회 22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 대응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조진상 동신대학교, 유영국 지오시티 대표, 이영규 광주대 교수, 조동범 전남대교수 등이 중앙·중외·영산강대상·일곡공원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 광주 사회통합지원센터 4개월짜리 센터장 공모 비난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유찰

### '비정규직' 조장 지적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이끄는 광주사회통합지원센터가 4개월짜리 센터장 공모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고용 기조로 내걸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정작 광주시 스스로 '비정규직'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 사회통합지원센터는 최근 연봉 5000만원대 경력직 센터장 공모에 나서 지난 18일 1차 서류전형과 21일 면접심사에 이어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과 경영관리, 운영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와 정책연구 및 개발 분야 10년 이상경력자 등 2명이 응시했지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연봉 4000만원대 홍보팀장도 함께 채용하는데 역시 4개월짜리 비정규 계약직이다.

이런 공모는 센터장 등의 갑작스런 사직에 따른 것으로, 전임 센터장은 '일신상 이유'로 임기를 4개월가량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센터장 인선 문제 등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5년 8억원, 지난해 10억원에 이어 올해도 7억원을 센터에 지원했다. 하지만 사회통합지원센터는 앞서 지난해 상반기 센터 위탁운영 기관인 전남대 산하 협력단인 위탁 협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개소한 지 1년4개월만에 최초새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사단법인 '더좋은 자치연구소'를 지정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다음달 6일까지 재공모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시스템을 정하는 입찰이 유찰됐다.

광주시는 22일 "1345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입찰에 우진산전과 현대로템 등 2곳이 응찰했으나 한 업체가 입찰가를 써내지 않아 유찰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의뢰해 추진한 이번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오는 9월 6일까지 제안서를 다시 받은 뒤 14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공모 과정에 단독 입찰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입찰은 도시철도에 들어가는 차륜(車輪)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고무바퀴와 철재바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고무는 우진산전이, 철재는 현대로템이 사

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번 입찰은 국내 조립이 전제여서 사실상 외국기업 입찰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2곳 중 1곳이 될 전망이다.

계약 업체는 오는 2019년 6월까지 차량 제작 설계를 마치고, 2024년까지 3단계로 나눠 납품한다.

광주시는 토목과 궤도 등 공사 분야 시설계를 최근 착수했으며 차량 등을 뺀 신호 분야는 다음달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2호선은 광주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정으로 이어지는 41.9km의 순환선으로 모두 3단계로 나눠 공사한다.

최종 완공 시점은 2025년이다. 기본설계 기준 예상 총 사업비는 2조549억원이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입장권 예매 매진 '인기몰이'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의 입장권 예매분이 매진되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

오는 9월 2일부터 이틀간 광주시 남구 사직공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행사 첫날 1일권 예매분 전량 매진을 기록하고, 2일권 역시 매진이 임박해 '지역 음악축제의 유료 모델'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월 19일 1차 라인업 발표 후 1일권 티켓이 매진되고 예매처인 인터파크 티켓, 티켓몬스터의 지역 콘서트 카테고리

리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1일권 사전티켓 매진, 예매처 티켓몬스터의 지역 콘서트 카테고리에서 예매율 1위를 차지했다.

올 공연에는 넬, 어반자카파, 브로콜리너마저, 스위트피, 옥상달빛 등 국내 최정상급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Polaris'(일본), 'Sunset Rollercoaster'(대만) 등 아시아권 실력파 아티스트로 구성된 다양한 라인업으로 꾸러진다. 입장권 가격은 1일권 3만3000원, 2일권 5만5000원이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농막형 1,350~2,350만원**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옵션 선택가능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

www.housecomma.com